KESLI 참여를 위한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평가요소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Evaluation Factors for Package-Type E-Journal Selection

김 홍 렬*
Hong-Ryul Kim

차 례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KESLI 참여를 통한 전자저널의 구입
4. KESLI 참여기관의 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평가요소의 선정구조
5. 결 론
• 참고문헌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KESLI 참여기관이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평가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나온 전자저널의 선정기준들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KESLI 참여기관의 구체적인 전자저널 평가요소를 출판사나 대행사에서 제시한 컨소시엄 참여 제안서와 계약 및 구독조건을 토대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전자저널 평가요소로 10개의 평가범주에 따른 34개의 세부 평가요소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요소는 개별 도서관이 새로운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선정하거나 구독중인 전자저널 패키지의 계속구독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 워 드

전자저널 평가, 전자저널 공동구매 컨소시엄, 학술지 구독, 평가요소, 평가방법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rector, College of Social Science, JeonJu University, hykim505@jj.ac.kr)
• 논문접수일자 : 2006년 11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 2006년 12월 8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factors that its impact on subscription of the package type e-journal in Kore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udy, factors to select the package-type electronic journal are discussed through preceded research literatures, and presented the factors for subscription of the package-type electronic journal based on KESLI materials. As a result, ten evaluation categories and thirty-four evaluation factors are selected as e-journal evaluation elements.

KEYWORDS

Electronic Journal Evaluation, KESLI, Electronic Journal Subscription, Evaluation Factor

1. 서 론

최근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전자출판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저널의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입과 활용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전자저널을 도서관이 수집하게 되면, 학술지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학술지 기사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검색 및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를 소장하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도서관의 전자저널 구입동향에서도 상당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실례로 국내 국립대학 도서관(상위 20개 기관)에서 1999년에 1개관당 평균 2,063종을 구입하였으나, 2002년에는 3,517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인쇄잡지의 평균 구독종수는 900종에서 610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바 있다(윤희윤 2003). 또한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이하 KESLI) 컨소시엄에 가장 많이 등록된 기관에서 2002년 한 해 전자저널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지출된 예산이 10억이 넘고 있다. 이는 해당기관 자료구입예산의 30%에 달하는 비율이다(이하범 2003). 이처럼 전자저널이 가지는 유용성과 기대효과로 인하여 학술지의 환경이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 변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전자저널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도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도서관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자저널의 수집을 내외부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도서

관에서 전자저널의 선정과 구독업무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저널을 확보하고, 구독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저널 구독과 선정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는 평가가 절대적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서관에서는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에 일반 전자자원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윤만영 2004).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KESLI 참여기관이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평가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KESLI는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구매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연구소,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저렴한 예산으로 학술저널의 확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전자저널 공동구매 컨소시엄이다. 따라서 KESLI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의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과 평가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가요소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KESLI 참여기관의 구체적인 전자저널 평가요소를 출판사에서 제시한 컨소시엄 참여 제안서와 계약 및 구독조건을 토대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선정할 때 KESLI 자료집을 활용하고 있고, 본 연구의 핵심이 KESLI 참여기관을 위한 패키지형 전자저널 평가요소에 대한 연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요소는 개별 도서관이 새로운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선정하거나 구독 중인 전자저널 패키지의 계속구독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술지 평가 목적 및 방법

학술지 평가의 목적은 구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용하는 선정을 위한 평가와 입수 후의 비선정(구독중단, 폐기, 보존서고로의 이동)을 위한 평가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김신정, 이창수 2004). 그러나 대체로 학술지를 평가하는 목적은 당해 연도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익년도의 학술지 구독갱신, 취소, 신규구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이와 아울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술지 평가를 통해 양질의 연구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효과적인 해외 학술지 장서개발을 도모하는 데 학술지 평가의 목적이 있다. 이하범(2003)은 장서평가의 본질은 어떤 지표를 적용하든 소장자료를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미소장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제공능력을 측정하여 도서관의 존재가치를 제고시키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집에서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관리 및 봉사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도서관의 효과성을 최적화하는 조치로 평가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 유용성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쇄학술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에는 사서나 주제전문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학술지의 가치와 내용을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방법과 도서관 내외부의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객관적 평가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평가방법에는 이용자의견 조사법이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객관적 평가방법에는 이용빈도 조사법, 인용빈도 조사법, 비용효과분석법, 학술지의 명성평가, 학술지의 접근성 평가법, 그리고 학술지의 형태사항 평가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의견 조사법은 주제전문가나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속간행물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체로 주제별로 학술지목록을 작성하여 주제 전문가에게 목록을 배포하고, 학술지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전적으로 전문가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존하는 것으로 학술지의 국제적인 명성이나 지명도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용빈도 조사법은 일정기간 동안 연속간행물의 실제 이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문복사, 대출, 회람, 열람, 상호대차 등의 연속간행물 이용빈도를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개별 학술지의 간행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학술지의 단순 이용빈도만을 계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인용빈도 조사법은 학술지 총 인용횟수를 나타내고 있는 JCR(Journal Citation Report)을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인용된 학술지의 인용빈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이와 더불어 JCR의 영향계수(Impact Factor), 즉시성 지수(Immediacy Index)를 산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비용효과분석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연속간행물의 이용빈도(원문복사이용량)와 구독가격을 종합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용빈도를 구독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효과를 측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연속간행물의 구독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학술지의 명성평가방법은 학술지 편집진, 출판사의 지명도, 투고자나 심사자의 자질 및 국제적 분포도, 학술지 배포의 광역성, 게재논문 수, 색인 초록지의 수록 여부, 출판의 즉시성, 주제영역의 포괄성 등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학술지 접근성 평가방법은 동일 지역에서의 입수가능성, 다른 매체로의 접근가능성, 상호대차 가능성 등의 요소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형태사항 평가방법은 학술지의 형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술지의 외관상 보이는 디자인, 종이상태, 인쇄상태, 사용언어, 간행빈도, 페이지수, 삽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인쇄학술지의 평가방법 및 유형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이용자 중심	장서 중심	신규 구독	계속 구독
이용빈도 조사법	○		○		○			○
인용빈도 조사법	○		○		○		○	○
비용효과분석법	○		○		○			○
학술지명성 평가법	○			○		○	○	○
학술지의 접근성	○			○	○		○	○
형태사항 평가법	○			○		○		○
이용자의견 조사법		○		○	○			○

2.2 전자저널의 평가기준

학술지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인쇄기반 학술지 평가기준과 전자저널의 평가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술지 선정에 관한 연구들은 인쇄기반 학술지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전자출판이 활성화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학술지를 구독할 수있는 전자저널 입수가 개별 도서관에서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자저널 선정과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별 도서관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전자저널을 구독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전자저널의 구독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저널의 평가기준은 기존의 인쇄저널의 평가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전자저널 자체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전자저널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평가기준들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배금표(1999)는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관에서 요구되는 전자저널을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가요소들로 자원의 목적 및 범위평가, 범주의 평가, 저자의 평판평가, 정확성 및 신뢰성평가, 자원의 최신성 및 유지성평가, 자원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의성평가, 정보의 표현 및 정리상태평가, 다른 자원과의 비교 등 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김혜련(2000)은 전자저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내용적 요소, 형태적 요소, 이용관리 요소, 비용과 장비요소, 데이터베이스 관련 요소, 패키지 관련 요소, 구독경로 관련 요소, 컨소시엄 관련 요소, 전체 장서의 일부로서의 평가요소 등으로 제시하였다.

윤만영(2004)은 대학도서관에서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들을 조사

하였는데, 그 기준들은 일반 전자형 자원의 선정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선정할 때의 기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수록 저널의 종류와 수, 일관성, 통합성, 데이터항목 구성, 검색기능, 검색키의 적절성, 부가기능, 접근성 및 사용의 편의성, 도움말 기능, 이용자 교육 지원, 인쇄저널 정보와의 일치성, 패키지의 구독으로 장서에 새로 추가되는 자원의 비율, 인쇄저널이나 다른 패키지 등 기존 자원과의 중복 정도, 인쇄저널의 구독을 대치할 수 있는 가능성, 저널의 개별 구독비용에 대한 패키지의 비용, 기간 파일의 유무, 라이선스 조건, 초보자 및 전문가를 지원하는 탐색수준 유무, 원격접근서비스의 유무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윤만영의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저널의 평가기준들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 도서관에서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구매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한 본 연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김신영과 이창수(2004)는 학술지 수집규모 상위 40개 대학도서관의 외국 전자학술지 선정에 활용되는 예비평가 지표 37개의 적용도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구독가격, 이용도(접근성), 컨소시엄 여부, 아카이빙 문제, 과년호 접근가능성, 인쇄 및 전자학술지 패키지 구독조건, 인쇄학술지 대비 이용편의성, 타 매체 구독 여부, 학술지의 지명도, 사서추천, 비구독 인쇄학술지에 대한 추가접근 정도 등이 높은 적용도를 보이는 평가기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의 주요 연구자들이 제시한 전자학술지 평가기준들을 살펴보면, 먼저 Nisonger(1997)는 전자저널의 선정기준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일반적 자료평가요소, 전자형 자료 평가요소, 자료선정을 위한 실제적 요소가 그것이다.

Hall(1997)은 전자저널의 선정기준으로 저널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이와 아울러 출판사의 권위, 편집위원의 신뢰도, 심사제도의 유무, 연간 발행빈도, 그리고 도서관의 수서정책, 자료구입예산, 다른 도서관의 구독 유무,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적합도 등의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Nabe(2001)는 전자학술지를 구독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구독가격, 학술지의 내용(주제의 중요도, 영향계수, 해당기관과의 관련성), 이용자요구, 라이선스 조건, 홍보, 아카이빙문제, 플랫폼 혹은 포맷문제, 비 구독 학술지의 추가적 접근 정도, 인쇄학술지의 구독취소 정책 등 9가지를 들고 있다. Brody(2001)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구독가격, 전자학술지 구독조건(인쇄 및 전자 패키지), 컨소시엄 여부, 주요색인 및 초록지 등재여부, 전문탐색 가능여부, 출판사의 지명도, 인쇄저널 대비 이용편의성, 네트워크, 교내 전산 인프라의 조건, 이용자의 전자저널 이용능력 숙지 정도, 주제영역, 장서구성 등을 학술지 매체 결정 요인으로 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연구자들이 제시한 평가기준들은 인쇄저널의 평가에 사용되었던

요소들을 전자저널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저널은 인쇄저널에서 볼 수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인쇄저널을 선정하는데 사용된 기준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관종별 도서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구독하고 있으며, 출판사 또는 공급업체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패키지 형태의 전자저널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도서관들이 KESLI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구독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평가기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 KESLI 참여를 통한 전자저널의 구입

3.1 KESLI의 개요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등의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보의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국가적으로 전자저널의 도입수준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국가 컨소시엄이다. 도입배경으로는 1998년 IMF로 인한 도서구입비의 대폭적인 삭감과 더불어 해외저널의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인쇄 중심의 저널 구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KESLI는 출판사와 전자저널 패키지에 따라 계약 조건이 상이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참여기관들은 각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전자저널 패키지의 구독을 위한 계약조건을 면밀히 살펴서 구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를 원하는 출판사별, 패키지별 인쇄저널의 구독종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약간의 전자저널 이용료만 추가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저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개념으로 되어 있다.

KESLI 홈페이지(http://kesli.org)는 이와 같은 해외 전자저널 공동구매 컨소시엄의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동일한 비용 또는 일부 추가된 비용으로 많은 수의 핵심 전자저널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분야 정보의 수집비용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국내 대학, 연구소 간에 극심했던 학술지구독 빈부격차가 일시에 해소되며,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출판사별 컨소시엄 가격이 각 기관의 자료구입 예산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관도 가입이 용이하다.

다섯째, 도서관들은 컨소시엄 조건들을 검

토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구독 및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

이러한 참여기관에게 다양한 효과와 이점을 제공하는 KESLI는 외환위기가 한창인 1999년 10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였고, 이듬해인 2000년 1월에 5개의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통해 전자저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6년 10월 현재 93개 컨소시엄에 약 34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3.2 KESLI의 운영체계

KESLI는 주관기관인 KISTI, 전자저널을 제공하는 출판사, 출판사별 컨소시엄 참가기관, 그리고 참가기관과 출판사를 연결하는 대행사 및 이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하부조직으로 KESLI 컨소시엄 운영위원회가 있다.

먼저, KESLI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인 KISTI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컨소시엄 참여기관을 대표하여 출판사와 구독비용 등의 협상조건 및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한다. 즉, 주제별 공급모델, 아카이빙 문제해결과 같은 출판사별로 다양한 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하고, 컨소시엄 참가기관을 대표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도출하여 협약 및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NDSL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저널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NDSL 시스템이 지원하는 권한별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저널 및 인쇄저널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라이선스 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KESLI 홈페이지 구축 등 공지 및 홍보서비스의 제공이다. 이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도서관에 개별 출판사와의 계약내용을 홍보하고,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참여를 위한 각종 다양한 권고나 반응을 수렴하는 것이다. 넷째,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즉, KESLI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개별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기관인 KISTI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KESLI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관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도 판단되는 출판사의 컨소시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행사는 출판사와 참여기관을 연계하는 고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출판사를 대리하여 KESLI와 협상을 중계하며,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을 위하여 전자저널의 구독을 대행하고,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KESLI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는 컨소시엄 참여기관 가운데서 지역과 관종을 고려하여 학술저널의 구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10개 기관의 도서관 전자저널 구독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운영위원회는 주관기관인 KISTI로부터 KESLI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각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의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에 제공한다. 2006년 현재 KESLI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배재대학교,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인하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 되어 있다.

3.3 운영 현황

KESLI 운영현황에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관수의 현황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의 수 및 각각의 전자저널의 종수, 참여기관의 관종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2〉는 일반적인 KESLI 운영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1월 현재 출판사에서 공급하는 컨소시엄의 수는 93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KESLI가 처음 시작된 2000년 6개에 비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다. 또한 참가기관의 수도 345개 기관으로 2000년 당시의 160개 기관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KESLI는 명실상부한 국내의 대표적인 전자저널 공동구매를 위한 컨소시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3개 컨소시엄에서 제공되는 자료 가운데 전자저널은 9,840종이며, 기타 자료로 5만5,867건의 개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자료는 각종 규격정보(Standards), 회의록(Proceedings), 전자도서(e book), 웹 데이터베이스(web DB)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KESLI 참여기관 345개 기관을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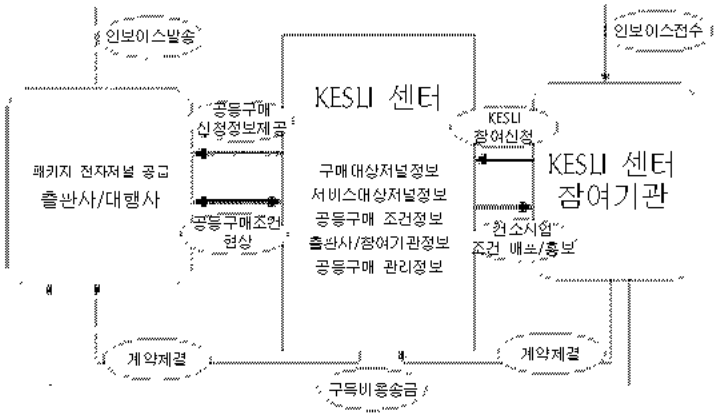
〈표 2〉 일반적인 KESLI 운영 현황

구분	컨소시엄(수)	참가기관(수)	제공자료(종)	
			전자저널	기타 자료
현황	93개	345개 기관	9,840	55,867

〈표 3〉 참가 기관 현황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공공기관
171(49.5%)	61(17.6%)	54(15.6%)	46(13.3%)	14(4.0%)

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이 171개 기관으로서 전체의 49.5%를 차지하여 KESLI의 참여가 가장 높은 관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그림 1〉 KESLI 컨소시엄 전자저널 구독절차

음으로연구소가 61개 참여기관으로 17.6%, 기업체가 54개 기관으로 15.6%, 병원, 의학도서관 등 의료기관이 46개 기관으로 13.3%, 공공기관이 14개 기관으로 4.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3.4 KESLI 컨소시엄을 통한 전자저널의 구독절차

〈그림 1〉은 KESLI 컨소시엄의 전자저널 구독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패키지 전자저널을 공급하는 출판사나 이를 대행하는 대행사와 참여기관을 대신한 KESLI센터 사이에 구매 대상 저널, 서비스 대상 저널 등 각종 공동구매조건을 협상하고, 협상이 완결되면, 컨소시엄 구매조건을 배포하여 구매를 홍보한다.

그 다음에 개별 도서관에서 이러한 컨소시엄 구매조건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검토가 완료되어 참여가 결정되면, 컨소시엄 참여신청을 KESLI 센터에 통보하고, KESLI 센터는 공동구매 참여 정보를 출판사나 대행사에 제공한다. 이에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공급을 담당하는 출판사나 이를 대행하는 대행사는 KESLI 컨소시엄 참여기관에 인보이스를 발송하고, 참여기관은 이를 근거로 구독비용을 송금함으로써 구매절차가 끝나고 본격적인 전자저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4. KESLI 참여기관의 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평가요소 선정

국내에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구독되고 있는 패키지형 전자저널에 대해서 조사한 윤만영(2004)의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인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구독을 위한 평가요소 선정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먼저, 그는 대학 도서관에서 적용하는 패키지형 전자저

널의 평가기준을 조사하였는데, 일반전자 자원의 선정기준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선정기준을 준용한다는 응답이, 그리고 선정기준이 없다는 응답도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에서 보듯이 KESLI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일반 전자자원의 선정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선정기준 없이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담당자의 직감에 의존하여 입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 시 고려하는 요소로 이용자의 요구가 가장 높은 요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 수록 저널의 주제 분야, 구독가격, 수록 저널의 수, Back files 유무, 이용자 인터페이스, 대행사나 출판사의 평판 및 신뢰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접적으로 개별 도서관에서 KESLI에 참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선정하는데 참고하고 활용하는 도구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KESLI 자료집, 전자저널 공급업체 자료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KESLI 참여와 관련한 각종 자료집이 저널의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대다수의 전자저널은 패키지형이기 때문에 내용중심의 미시적 선택(micro selection)을 전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패키지 중에서 결정하는 거시적 선택에 의존한다(윤희윤 2003). 또한 패키지형태로 구입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접근 가능한 학술지의 종수는 증가하지만, 패키지에 포함된 대부분의 학술지는 자관의 이용자에게는 부적합한 학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Dekeyser(2000)는 패키지형 전자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90% 이상이 로컬 이용자게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현상은 '풍요 속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수집하고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수집하는 국내 개별 도서관에서도 학술지의 선정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KESLI 참여기관의 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KESLI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별 도서관에서 해외 전자저널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요소는 자관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지의 수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관에서는 해외 전자저널을 수집하기 위한 주제 분야, 수집규모, 운영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학술지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자관의 전자저널 수집정책을 반영한 요소들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 상황에서 국내 개별 도서관이 입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패키지형 해외 전자저널은

KESLI의 구독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관에서 내부 이용자만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라이선스이며, 개별적으로 전자저널을 입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저널 패키지별로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요소의 선정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쇄기반 학술지처럼 해외 전자저널의 평가가 개별 잡지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저널의 평가가 패키지별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자저널의 평가요소는 인쇄학술지의 수집과 유사한 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인쇄학술지의 평가요소의 다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인쇄학술지의 평가방법인 객관적 평가방법, 주관적 평가방법에서 전자저널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요소와 자관의 전자저널 수집정책과 관련한 평가요소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서 KESLI 참여기관의 구체적인 전자저널 평가요소를 출판사에서 제시한 컨소시엄 참여 제안서와 계약 및 구독조건을 토대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선정할 때 KESLI 자료집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본 연구의 핵심이 KESLI 참여기관을 위한 패키지형 전자저널 평가요소에 대한 연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KESLI 자료집에는 계약기간, 컨소시엄의 특징/장점, 제공서비스, KESLI 컨소시엄의 조건, 구독조건, 일반 컨소시엄 조건, 개별 구독조건, 공급사 협조사항, 계약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4.1 객관적 및 개량적 평가 측면

① 패키지의 명성 및 권위

이 평가요소는 컨소시엄의 명성과 권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컨소시엄을 공급하는 출판사의 권위나 평판, 대행사의 권위나 신뢰도, 그리고 패키지 배포의 광역성, 주제영역의 포괄성 및 적합성 등이 세부적인 평가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출판사의 권위나 평판은 컨소시엄을 공급하는 출판사가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믿을만한 출판사인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컨소시엄을 국내의 개별 도서관에 공급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행사의 신뢰성이나 권위도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패키지 배포의 광역성은 패키지의 배포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만큼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패키지가 지역적으로 혹은 지엽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면 그 만큼 패키지가 가지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주제영역의 포괄성은 패키지가 제공하고 있는 저널이 자관의 입수를 의도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저널이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

를 평가하는 측면이다. 즉, 자관이 의도한 주제 분야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라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전자저널의 접근성

이 평가요소는 구독하고자 하는 전자저널을 다른 매체나 통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관의 구독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구독취소나 계속구독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요소에는 구체적으로 타기관으로 전자저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인쇄저널이나 웹 등의 다른 매체로도 접근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원문이용빈도

이 평가요소는 인쇄기반 저널의 이용빈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패키지별 이용자의 원문 이용건수를 계산한 것이다. 이 평가방법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쇄 및 전자저널을 선정하는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이다. 그러나 이용빈도를 평가에 적용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이용빈도를 고려해야 하며, 각 패키지에 수록된 학술지 종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B 두 패키지의 이용빈도가 똑같이 1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학술지의 수록종수가 A 패키지는 50종이고, B 패키지는 100종이라면 단순한 이용빈도를 계산하면, A 패키지는 이용빈도가 200이고, B패키지는 이용빈도가 100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록종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비용

비용은 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구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구입예산이 충분하게 구비되지 않은 도서관에서는 상당한 액수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독비용이 높은 패키지의 구독은 불가능하게 보일 지 모른다. 따라서 패키지의 구독가격과 이용건수 대비 구독가격, 패키지에 수록된 종수 대비 구입가격, 그리고 패키지 구독가격의 인상률, 할인율 등이 개별 도서관에서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컨소시엄 계약조건

대체로 KESLI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경우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컨소시엄의 조건을 통해서 전자저널에 대한 이용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컨소시엄 계약조건에 해당되는 요소로는 인쇄저널 구독과의 관계, 인쇄저널 구독유지조건, 구독조건 대비 할인율,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다. 인쇄저널 구독과의 관계는 인쇄저널 구독유지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쇄 및 전자저널 조건 구독 시 인쇄저널의 구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구독조건 대비 할인율은 동일한 학술지의 종수를 '인쇄 및 전자저널의 구독'과 '전자저널만 구독'의 조건 시에 어느 정도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⑥ 제공서비스 및 공급사 협조 사항

출판사와 전자저널 구독 라이선스를 체결했을 때 공급사가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와 협조사항을 말한다. 여기에는 원격접속허용 여부, 이용통계제공 여부, 디지털 아카이빙 허용 여부, 전자원문 DDS 허용 여부, 기간호(back issue) 제공 여부, 메타데이터 제공 여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메타데이터 제공 여부에 따라서는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논문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으며, 원문과의 링크를 통하여 원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전자저널이나 전자 형태로 변환되지 않은 기간호(back issue)를 제공할 수 있는 지의 여부도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또한 이용통계 제공여부에 따라서는 컨소시엄별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빙 센터 구축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용 원문정보를 제공하느냐의 여부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원문의 DDS(Document Delivery Service)의 허용 여부도 원문의 이용도가 높거나 원문서비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관에게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⑦ 정보검색의 편의성

이 요소는 컨소시엄의 소개자료를 바탕으로 검색의 편의성, 검색 소프트웨어의 부가적 기능제공, 패키지의 우월성 및 특징, 원문 다운로드 방식,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평가하는 측면이다. 여기에서 검색 소프트웨어의 부가적인 기능제공은 패키지에서만 유일하게 제공되는 각종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통합 검색을 지원한다거나 'Most Frequently Access Articles' 리스트를 제공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논문을 쉽게 찾아보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전자저널 사이트에서 각종 기능이나 메뉴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저널의 접근과 이용을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⑧ 출력물 평가

전자저널을 검색하여 출력하였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측면이다. 이 요소에는 도표 및 사진 등의 선명한 인쇄를 지원하고 있는 지, 또는 학술지의 전반적인 내용배열 상태 및 레이아웃, 인쇄상태, 선명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2 주관적 평가 측면

주관적 평가는 이용자의 요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로서, 전자저널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적인 이용만족도에 따라 전자저널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용자의견 조사법으로 불리어지며,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목록과 이용자 의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전자저널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나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존하는 것으로 학술지의 국제적인 명성이나 지명도, 내용의 유익성, 요구 정도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러나 주관적 평가는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평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평가에 앞서서 이용자 의견 평가에 대한 간략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견 조사표의 질문문항은 되도록이면 적게, 그리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너무 많은 질문문항은 지루함을 가져다주며,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의견조사를 포기하거나 불성실한 의견을 표현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등 평가의 주체에 따라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가의 주체는 실제 전자저널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잠재적 이용자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3 자관의 전자저널 수집정책 측면

전자저널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아마도 자관의 전자저널 수집정책이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관의 전자저널 수집 방향과 다른 패키지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즉, KESLI를 통해 구매한 전자저널은 원칙적으로 인쇄저널과는 달리 외부 이용자에게 개방되지도 않고, 상호 대차도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저널은 전적으로 원내(in house)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내 이용이 높은 주제 분야의 전자저널 패키지를 수집하거나, 모체 기관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패키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의 평가요소는 '자관의 학술지 구입방향과의 일치성', 그리고 '자관이 선정한 핵심저널'에의 포함 여부 등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 도서관에서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가요소는 〈표 4〉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KESLI의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서 개별 도서관에서 고려해야 할 전자저널 평가요소로 10개의 평가범주와 이에 따른 34개의 고려해야 할 세부 평가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전자저널의 평가에 여기에서 선정된 이들 34개의 개별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본 고에서 제시한 평가요소는 개별 도서관이 새로운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선정하거나 구독 중인 전자저널 패키지의 계속구독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평가요소를 참조하여 실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34개의 모든 요소를 선정할 수도 있으며, 기관의 입수환경이나 사정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몇 개의 평가요소를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 패키지형 전자저널 선정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평가 요소

평가의 범주	고려할 수 있는 평가요소
패키지의 권위 및 평판	출판사의 권위 및 평판
	대행사의 권위나 신뢰도
	전자저널 배포의 광역성
	주제 영역의 포괄성 및 적합성
	갱신이나 개정의 신속성
전자저널의 접근성	다른 매체로의 접근 가능성
	다른 기관으로의 접근 가능성
원문이용빈도	원문이용빈도
구입비용	전체 구독가격
	원문이용건수 대비 구독가격
	수록종수 대비 구독가격
	구독가격의 인상률
	구독가격의 할인율
컨소시엄 계약조건	인쇄저널 구독 유지 조건
	구독조건 대비 할인율
	계약 기간
제공서비스 및 공급사 협조 사항	원격 접속 허용 여부
	이용통계 제공 여부
	디지털 아카이빙 허용 여부
	전자 원문 DDS 여부
	기간호(back issue) 제공 여부
	메타데이터(metadata) 제공 여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부
정보검색의 편의성	검색의 편의성
	원문 다운로드 방식
	이용자 인터페이스
	부가적 기능
출력물 평가	도표 및 사진 등의 인쇄 지원 기능
	해상도
	전반적인 내용배열과 레이아웃
	내용상 문법과 철자의 정확성
이용자 의견 조사	이용자의 요구 정도
자관의 전자저널 수집정책	학술지구입 방향과의 일치성
	자관이 선정한 핵심저널 포함 여부

4.4 평가의 체크리스트 및 고려사항

개별 도서관에서 상기와 같이 추출한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자관의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요소들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요소들을 가지고 실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국내 개별 도서관들이 KESLI 참여를 통하여 구입하게 되는 전자저널은 대개 패키지별로 구독을 갱신하거나 중단하기 때문에 패키지에 수록된 개별 학술지의 품질이나 이용도를 평가하기보다는 패키지별로 선정을 위한 평가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인쇄기반 저널은 대부분 개별 학술지별로 구입이 가능하나, 다수의 도서관에서 입수하는 전자저널은 패키지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평가요소를 선정할 때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전자저널은 원외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원내 실제 전자저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저널에 대한 의견조사가 필수적이다. 다만, 원내 이용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의견조사 대상자의 선발이나 의견조사표의 세밀한 작성이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평가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아마도 구독 비용과 원문이용빈도와 관련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들 요소들이 전자저널의 구입을 담당하는 사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3년간 다른 패키지에 비하여 구독료의 인상이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두드러지는 패키지나 패키지 구독료 대비 원내 이용이 지나치게 저조한 패키지는 구독의 지속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요소들을 다른 요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KESLI에 참여하여 구독하는 전자저널은 패키지형태로 구입하기 때문에 적은 구입예산으로 한꺼번에 많은 학술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패키지에 포함된 대부분의 학술지는 자관의 이용자에게는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 따라서 구비한 학술지의 종수는 많으나 이용할 수 있는 학술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수집하고 선정하는 일이 개별 도서관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신중한 업무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KESLI와 같은 컨소시엄 형태의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구입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평가기준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예산으로 최적의 전자저널을 수집하고, 구독예산 투입의 정당성확보를 위해서는 학술지 평가작업이 구입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도서관이 구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저널은 KESLI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므로, 평가작업이 인쇄저널처럼 개별 저널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패키지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많은 국내 도서관이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평가작업 시 인쇄저널의 평가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의 정확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KESLI 관련 각종 자료집을 근거로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선정하였다. 이들 요소는 패키지의 권위 및 평판, 전자저널의 접근성 등 10개의 평가범주와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34개의 세부 평가요소를 선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요소는 개별 도서관이 KESLI에 참가하여 새로운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선정하거나 구독 중인 전자저널 패키지의 계속구독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패키지형 전자저널 선정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평가요소는 KESLI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평가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실제 자관이 전자저널의 평가업무에 이 요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업무에 앞서서 각 평가범주와 요소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척도나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설정될 수 있는 척도나 가중치는 기관의 저널 수집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신정, 이창수. 2004. 대학도서관의 외국학술지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1(2): 45 67.

김혜련. 2000.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배금표. 2000. 전자잡지의 평가요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 95 100.

윤만영. 2004. 『대학도서관 전자저널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윤희윤. 2003. 디지털 장서관리의 패러독스 분석. 『한국비블리아』, 14(1): 5 24.

이하범. 2003. 전자저널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연구.『한국비블리아』, 14(1): 79 9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해외 핵심정보자원 개발』.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

Brody, Fern Elise. 2001. *Planning for the balance between print and electronic journals in the hybrid*

digital library: lessons learned from large ARL librari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Hall, Barbara. 1997. Management and integration of electronic journals into the serials department. *In Advances in Serials Management 6*. Greenwich: JAI Press

KESLI. 컨소시엄의 소개. [인용 2006. 10. 10]. 〈http://kesli.org/kesliindex.html〉.

Nabe, Jonathan. 2001. E journal building and its impact on academic libraries: some early result.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anship*, 30(spring).

Nisonger, Thomas E. 1998. *Management of Serials in Libraries*.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